

“개막전 엔트리 작성해보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 선수들이 수비 훈련이 끝난 뒤 박수를치고 있다. 8일 귀국을 앞둔 선수들은 김기태 감독으로부터 엔트리 작성이라는 숙제를 받았다.

김기태 KIA 감독, 선수들에 숙제... “팀 전력·개인 기량 스스로 객관적 판단을”

“투수 몇 명으로 할까?”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를 지휘하고 있는 김기태 감독이 얼마 전 투수 임기준에게 ‘개막 엔트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임기준은 망설임 없이 “13명입니다”라고 답을 했고 김 감독은 “기준이가 투수 13명으로 가자고 한다”고 아주조 한테 가서 말해도 되나?며 웃음을 터트렸다.

KIA는 지난 시즌에는 개막전 선발인

핵터를 제외한 선발진을 빼고 9명의 투수로 개막전 엔트리를 작성했다. 앞선 한국시리즈에서도 12명의 투수로만 엔트리를 채웠다. 임기준의 욕심이 담긴 대답에 김 감독의 웃음이 터진 것이다.

이러한 김 감독은 LG 트윈스 감독 시절에 선수들에게 엔트리를 직접 작성해보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감독이 되어 엔트리를 짜서 주라고 한 적이 있다. 딱 한

명 빼고 모두 다 자기 이름을 다 넣었다(웃음). 한 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어떤 선수는 외아주만 9명을 넣어서 제출하기도 했다. 자기 자리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9번째였을 것이다”며 웃음을 보였다.

임기준에게 엔트리 질문을 던졌던 김 감독은 캠프 종료 후 선수단 전원에게 무기명으로 엔트리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줬다. 37일간의 스프

링캠프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시즌을 멀리 내다보라는 의미가 담긴 숙제다.

선수들에게는 전체적인 팀 전력을 생각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올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 감독은 선수들의 시선에서 캠프를 평가하고 시즌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KIA는 8일 스프링캠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KIA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서 본 무대에 오를 최종 27명을 고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고졸 루키 하준영(왼쪽)과 한준수.

“1군서 ‘필승 배터리’ 될 것”

생애 첫 캠프 포수 한준수·투수 하준영 당찬 포부

“필승 배터리”를 꿈꾸는 ‘아기 호랑이’들의 생애 첫 캠프다.

KIA 타이거즈는 40명이라는 최소규모의 선수단으로 2018 스프링캠프에 나섰다. 최고참 임창용을 필두로 정예 멤버들로 꾸린 이번 캠프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포수 한준수와 투수 하준영 등 두 명의 신인 선수가 함께하고 있다.

광주 동성고 출신인 한준수는 우선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이고, 좌완 하준영은 성남고 2학년 때부터 청소년 대표로 경험을 쌓은 기대주다.

한준수는 40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기라성같은 선발들과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치러왔다. 대만 캠프에서 출발했던 하준영은 퓨처스 코치진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오키나와로 건너왔다.

이들에게는 ‘꿈같은’ 캠프이자 ‘성장통’의 시간이었다.

한준수는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머리가 복잡하다(웃음). 배운 것을 써먹어야 하는데, 머릿속에는 그려지는데 몸이 안 돼서 스트레스도 받는다”면서도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생애 첫 캠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TV에서 보던 선발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두 막내에겐 힘이 되는 선발들이기도 하다. 특히 한준수는 입단 전 ‘도루 저지’에 관해 물어보고 싶다는 물모달로 꼽은 김민식과는 룸메이트로 캠프를 함께했다.

한준수는 “선배님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많아서 따라가려고 한다. 선배님들이 더 자신 있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신다. 김민식 선배님과 룸메이트를 해서 좋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하준영에게는 생각지 못한 캠프였기에 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준영은 “전지훈련 일수가 적어서 캠프 멤버를 바꾸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1군 엔트리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다”며 “처음에 오키나와 캠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꿈인가 생신인가 했다. 비행기를 타고오는 데 계속 떨렸다”고 생애 첫 캠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캠프 와서도 많이 신기했다. 눈앞에 대만 선발들이 있어서 신기하고 많은 걸 배웠다. 양현종 선배님을 좋아했는데 가까이서 보면서 역시 양현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신인이고 어린나이가 패기 있게 던지려고 했다. 앞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보충할 생각이다. 시즌 때 힘이 안 돼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동경하던 선배들과 훈련을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두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힘은 ‘친구’였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두 사람은 ‘필승 배터리’를 다짐하며 이번 캠프를 정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친구가 같이 와서 캠프를 해서 좋았다. 캠프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됐다”며 “돌이 꼭 살아남아서 1군 무대에서 배터리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6일 오전 강원도 평창선수촌에서 열린 선수단 입촌식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패럴림픽 선수단 선수촌 입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평창선수촌에 공식 입촌했다.

배동현 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6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체코 선수단과 합동 입촌식을 했다.

이날 입촌식에는 배동현 단장을 비롯해 장애인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등 4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62명이 참석했다.

알파인스키 대표팀 선수들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오전 훈련을 하느라 참석하지 못했고, 경기도 이천훈련원에서 막바지 담금질 중인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이날 밤 선수단에 합류했다.

입촌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김성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여형구 평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입촌식은 박은수 평창 선수촌장장과 배동현 단장 간 선물 교환에 이어 패럴림픽 대회비 사인, 선수단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

됐다. 배동현 단장은 열일 송정희 씨가 쓴 ‘평창’이라고 쓰인 대형 글씨를 박은수 촌장에 선물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를 염원하는 대회비사인에는 배동현 단장과 전체 선수단 주장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캡틴’ 한민수가 함께했다.

박은수 촌장은 환영사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장애인으로서 모든 선수가 자랑스럽고, 평창을 찾아줘 반갑다”면서 “대회 기간 자신이 갖고있는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동현 단장은 “오늘은 선수촌에 정식 입촌한 아주 뜻깊은 날”이라면서 “우리 선수들이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배 단장은 이어 “목표로 한 종합 10위 목표를 안방에서 이룰 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6개 전 종목에 걸쳐 선수 36명, 임원 47명 등 83명을 파견해 금·은메달 각 1개와 동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0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개인 금 1억·단체전 금 3억 포상금”

배동현 선수단장 밝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을 이끄는 배동현(38·사진) 단장이 거액의 포상금을 약속했다.

배동현 단장은 6일 평창선수촌에서 공식 입촌식이 끝나갈 무렵 선수들에게 공지할 내용이 있다면서 마이크를 잡은 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했다면 좋겠다”면서 “조심스럽지만 포상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창성건설 대표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는 배 단장은 민간 기업 최초의 동계종목 장애인 실업팀인 창성건설 노르딕스키팀을 창단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보여왔다.

배 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는 개인전의 경우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이다.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휠체어컬링 등 단체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 단장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



라이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멋진 선수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수들과 ‘평창, 대한민국 파이팅’을 함께 외친 뒤 선수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입촌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내년 프리미어12 올림픽 티켓 2장 한국 야구, 2위 해야 도쿄 직행

한국 야구대표팀이 내년 프리미어 12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해야 2020 도쿄올림픽에 가는 길이 순탄할 전망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래 야구는 도쿄올림픽에서 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야구 종목의 마지막 챔피언이자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이다. 야구 랭킹 상위 12개 나라가 격돌하는 프리미어 12는 2015년 출범해 4년마다 열린다.

6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KBO 사무국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야구의 국가별 출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모두 6개 나라가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만 결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등을 거쳐 올림픽 출전 방식을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에 열리는 제2회 프리미어 12에 아메리카 대륙 1위 팀과 아시아 대륙 1위 팀에 1장씩 2장의 출전권을 준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이 자동출전하

로 프리미어 12에서 출전권 3개 나라가 결정되는 셈이다.

WBSC는 원래 프리미어 12에서 일본을 제외한 1개 팀에 올림픽 출전권을 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대륙별 예선전 형식을 거쳐 출전권을 줘야 한다는 IOC 방침에 따라 프리미어 12에서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1위 팀에 대륙별 예선전을 대체해 1장씩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는 대만, 호주 등을 따돌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위를 하면 올림픽에 직행한다. 나머지 3개 팀은 2020년 3월에 열리는 대륙별 예선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아프리카 대륙별 예선전 1위 팀과 출전국이 많은 아메리카 대륙 최종 예선전 1위 팀에 출전권 1장씩을 준다. 대륙별 예선전에서 탈락한 국가들은 별도의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전 성격의 대회에서 1위를 해야 마지막 출전권 1장을 획득할 수 있다.

결국, 프리미어 12 디펜딩 챔피언인 한국은 대회 2연패를 거거나 일본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야 출전이 유력하다.

/연합뉴스